

나주 수세 거부투쟁의 현장을 찾아서



기차가 나주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역무원의 어깨와 모자 위에도 눈이 소담스레 내려앉았다. 나주역에 내리자마자 가까머리에 검은 교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뚝뚝 걸음을 하는 소년들과 갈래머리를 흔들며 수줍게 그 뒤를 따르는 소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의 나주역은 예전의 나주역이 아니다. 광주 학생운동의 진원지였던 옛 나주역사는 폐쇄되었으며 그보다 조금 더 시내로 깊숙이 들어온 자리에

지금의 나주역이 세워졌으니. 허나 시공을 초월해 식민지 조선의 소년, 소녀들이 눈 속을 뚫고 걸어가고 있었다. 소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길 일본인 학생들은 없지만 그 소년, 소녀의 후손들이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주는 배가 유명한 고장이다. 그래서일까. 역 앞 광장 위로 훑날리는 눈은 하얗고 순결한 배꽃 같았다. 배꽃이 흐드러지게 날리는 나주, 이게 바로 나주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조금 뒤 나주신문의

기자로 있는 박철환(38) 씨가 마중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배꽃이 피어 있었다.

농민들 속으로

1987년은 민주화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해이다. 당시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던 것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와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의 결과로 그해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한다. 나주라고 해서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비껴갈 리는 없었다. 나주지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자 나주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청년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흔히 1987년을 일러,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해라고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또한 1987년은 농민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농민운동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유는 아마 1987년뿐만 아니라 몇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양되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농민운동에 있어서도 1987년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 나주 수세거부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나주지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산하에 청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나주지역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지금의 나주 시장인 신정훈(40) 씨가 미문화원 점거농성 때문에 치렀던 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이들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의기투합을 했고 이른바 6인의 활동가 시대가 시작되었다.

박철환 씨의 소개로 당시 6인의 활동가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선재(48)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선재 씨는 어느새 당시의 혈



1991년 10월 2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농민대회 (사진 한겨레신문)

기왕성한 청년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광주 호남성당에서 수세 관련 집회가 있었어요. 당시 우리들은 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수세 문제가 나주지역 농민들의 절박한 문제이며 또한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지요.”

수세거부투쟁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갑오농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부봉기 역시 따지고 보면 수세거부투쟁이었다. 그만큼 수세란 오랜 세월 동안 농민을 억누른 무거운 짐이었다. 어쨌든 이들은 6월 항쟁을 계기로 새롭게 지역운동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나 할까. 거대한 역사적 투쟁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제 지역의 민주화에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전환한 패러다임은 ‘중앙에서 지역으로’라는 슬로건에 국한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른바 대중운동의 정형을 창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주에는 모두 육백여 개의 마을이 있어요. 육개월 동안 우리는 거의 모든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인 마을회관에서 수세와 관련한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 되기 이전의 농지개량조합은 수리시설의 관리와 수세 징수를 하였다.

토론을 벌였지요. 결국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줬을 뿐이지요.”

처음 시작은 6인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대부분의 마을에 수세거부대책위가 만들어졌다. 나주의 13개 면 가운데 8개 면에서 면 단위 수세거부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군 단위 대책위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농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수세거부투쟁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나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철저히 대중에 기반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집회를 치를 때, 그 집회의 명칭을 농민대회라고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로 심각하게 토론하기도 했어요. 농민대회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농민이 주인이 되고 어우러져야 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관성적으로 받아들여 쉽게 농민대회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대회 명칭을 두고도 그들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들이 그렇게 고민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때까지 농민운동은 가톨릭 농민회와 기독교 농

민회 등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몇몇 유명세를 지닌 명망가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관성을 반성하고 새로운 운동방식을 고민한 게 바로 나주지역의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농민운동에 뛰어들지 않았다. 진실로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대단했다. 그해 12월 29일, 나주 성당에는 만 오천 명의 농민들이 모였다. 농민들 스스로 그렇게 거대한 군중을 이뤘던 것이다.

농민수탈의 근거지 농지개량조합

나주 수세거부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는데 박철환 씨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제적당한 상태였어요. 군대를 갔다 왔더니 학교 측에서 복학을 허락해 주더군요. 그래서 복학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수세거부투쟁이 시작된 거지요.”

그의 이력에도 우여곡절이 많다. 전남대 전기공학과 85학번인 박씨는, 그의 표현을 빌면 ‘심부름꾼’으로 수세거부투쟁에 뛰어들었다. 만약 이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복학해 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직장을 잡아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학교를 포기했고 ‘형님’들을 따라 새로운 대중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한때 나주농민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나주지사에 도착했을 때는 눈발이 그쳐 있었다. 눈 녹은 도로는 비 온 뒤처럼 반짝거렸고 그 탓에 도시 전체가 한결 싱그럽게 느껴졌다. 지난 2000년 1월 1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한 게 바로 농업기반공사다. 지금 농업기반공사 나주지사가 있는 자리에 당시 농지개량조합이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농지개량조합이란 농민수탈기구였죠.

나주 농민들의 원성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향의 방문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기 이전까지 농지개량조합은 수리시설에 관한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수세를 징수하는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수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농지개량조합과 무관할 수 없었다. 농민들이 농지개량조합 앞마당을 수시로 점거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당시 농지개량조합은 수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들까지 동원했으며 면 직원들조차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수세를 내라고 독촉했다. 그러던 중에 급기야 농지개량조합은 수세를 내지 않는 농민들의 농토를 차압하겠다는 경고를 한다. 나주 농민들은 차압저지결사대를 만들어 대응하고 오랜 싸움 끝에 결국 농지개량조합장 선거 직선제를 얻어냈다. 나주 농민들은 농민 대표를 선거에 내보내고 최초로 농민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하기도 했다. 원래 전국의 수많은 저수지들은 농민들이 만들었다. 주로 일제시대에 일제의 증산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저수지의 주인은 농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번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세를 내기까지 했다. 농지개량조합장에 당선된 최초의 농민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 농민의 것이었던 저수지를 농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의 주역

그렇다면 대체 당시 수세는 얼마나 되었을까? 수세거부투쟁이 일어났을 무렵, 수세는 300평 당 쌀 23kg에 해당하는 돈으로 지불해야 했다. 전국적

으로 따지면 농민들이 일 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수세는 모두 1천억 원에 달했다.

1987년 12월 12일 최초로 나주에서 군 단위 수세거부대책위가 결성된다. 이미 면 단위, 마을 단위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주 수세거부대책위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있는 셈이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세밀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이 전해졌다. 무려 만오천에 달하는 농민들이 참여한 나주농민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지역들도 수세거부투쟁에 나서게 된다. 대표적으로 해남과 순창이 대중적인 수세거부투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 규모의 대책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나주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불씨 하나가 전국을 활활 태우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1988년, 나주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세거부투쟁에 들어선다. 대규모 농민대회를 치른 지 넉 달 만인 4월 13일, 다시 한번 만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집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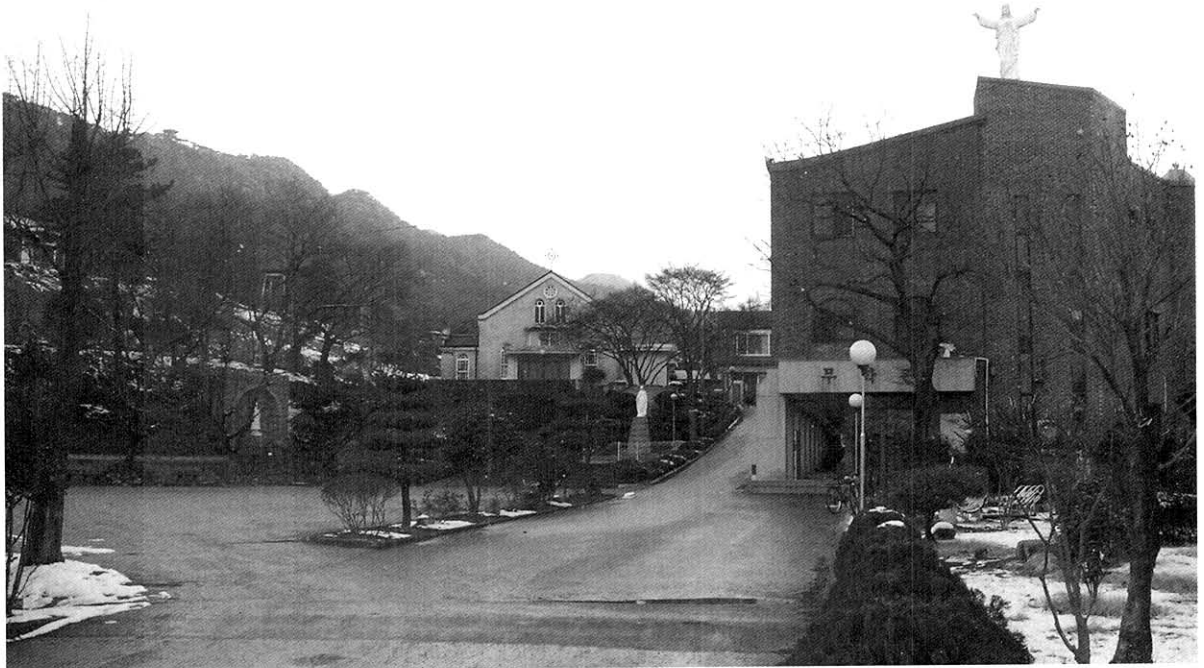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훗날 수세가 완전히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기까지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농업기반공사 나주지사를 벗어나 천주교 나주성당을 찾아갔다. 바로 이곳이 두 차례의 대규모 나주농민대회가 열린 장소이다. 성당을 찾았을 때 하늘은 다시 눈을 흘뿌리기 시작했다. 정문에서 성당까지의 진입로는 폭이 넓지 않았다. 왼쪽에는 기와로 지붕을 올린 집이 있는데 박씨의 설명에 따르면, 농민대회 당시 사람들이 그 지붕까지 올라가



1894년 갑오농민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만석보의 유지비(전북 정읍시 이평면)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나주성당은 농민운동가들이 모이는 곳으로 또한 대규모 농민들의 집회가 열리던 장소이기도 했다.

있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한다.

성당 왼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가 있으나 만 오천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말하자면, 비록 대회 장소는 나주성당이었으나 성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모두 대회장소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성당 앞 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나주 시 전체가 수세폐지, 농지개량조합 해체를 외치는 농민들로 그들먹했던 것이다.

성당은 농민운동과 인연이 깊다. 자생적 농민운동이 미약했던 시절, 대체로 가톨릭 농민회와 기독교 농민회가 농민운동을 주도하였으므로 성당은 농민운동가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최초로 수세투쟁을 계획했던 나주의 청년들 역시 주로 영산포성당을 회의장소로 이용했으며 나주성당을

집회 장소로 일찍부터 점찍어 두었다.

이처럼 나주 농민들이 나주성당에 모여 수세거부투쟁을 벌일 무렵, 주로 경상도 지역의 농민들은 고추와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적 규모의 단일한 농민운동 단체가 없었다. 수세와 고추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 수세폐지대책위와 전국고추생산지역대책위가 드디어 1989년 2월 13일 여의도에서 역사적인 '수세폐지 및 고추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를 연다. 이 집회를 계기로 농민운동은 그동안의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결성하게 되고, 대중적 농민운동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나주지역에서 시작된 수세거부투쟁의 역사는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된 농민운동의 역사가 아니라, 전체 농민운동을 이끌어 갈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탄생을 예고하는, 다시 말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사(前史)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겨울에 피어난 배꽃처럼

나주는 수세거부투쟁의 진원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쉬지 않고 많은 변화를 일구고 있다. 수세거부투쟁이 종결된 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주농민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주농민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농민후보로 출마한 신정훈 씨가 나주 시장에 당선된 게 바로 그것이다. 신씨는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농민후보이면서 최연소 단체장이기도 하다. 농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만큼, 나주 시민들의 기대도 남다를 것이다. 하지만 관료주의 사회란 생각처럼 쉽게 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물론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초기라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에 집착해 되지 않는 일을 성급히 추진할 생각도 없습니다. 나주 시민 모두가 살 맛 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신 시장은 수세거부투쟁을 시작했던 6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과거의 명망가 중심의 관성적 농민운동의 틀을 깨고, 대중이 주인으로 서는 대중적 농민운동의 정형을 실천으로 만들어 낸 인물이다.

그가 더디 가더라도 나주 시민 모두와 함께 가겠다고 말할 때는 막 고향에 돌아와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던 청년의 모습도 언뜻 엿보였다. 나주는 행복한 곳이다. 웬지 그렇다.

박씨는 나주역까지 배웅해 주었다. 다시 눈발이 흠날리기 시작했다. 영산강이 휘감아 흐르는 곳. 한겨울에도 배꽃이 피어나는 곳. 박씨는 나주에 대한 인상이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수줍어했다. 달리 무슨 대답이 필요하랴. 머리와 어깨에 내려앉은 눈



나주는 수세거부투쟁의 진원지일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많은 변화를 일구어 갔다. (사진 한겨레신문)

을 되도록 오랫동안 털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수세거부투쟁

1985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87년 말 해남 및 나주지역 '수세폐지대회'에 무려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수세를 거부하고 납부고지서를 불태우는 큰 싸움으로 폭발하였다. 88년부터는 마을대책위에서 전국대책위까지 연결된 대중적 농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그 해 9월 14일 '전국수세폐지대책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89년 2월 13일 여의도에 2만 5천여 농민이 모여 시위를 벌인 투쟁의 결과 '수세 인하와 '농지개량조합 조합장 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수세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87년까지 1년에 923억씩 견디던 수세는 88년 300평 당 10Kg로 인하되어 355억으로, 89년에는 5Kg로 인하되어 197억으로 줄어들었다.

손 홍 규

1975년 전북 정읍 출생
2001년 최명희 청년 문학상 소설 수상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